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 최초 OTT섹션 신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올해 '온 스크린' 초청작 첫 선 '지옥' '마이네임' '포비든' 공개

부산국제영화제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서 방영될 드라마 시리즈를 상영하는 '온 스크린' 섹션을 신설한다.

10월 열리는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는 아시아 최초로 OTT 공식 섹션을 신설했다고 25일 밝혔다.

영화제 측은 "최근 다방향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영화산업의 현주소를 기민하게 반영하는 한편, 영화 매체의 확장된 흐름과 가치 역시 포용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앞서 온 스크린과 유사한 성격의 섹션을 운영해온 선진영화제는 베니스국제영화제, 토론토국제영화제 등이 있다.

올해 '온 스크린' 초청작은 연상호 감독의 '지옥', 김진민 감독의 '마이네임', 안우차 분아타나(태국)·조슈 김(미국) 감독의 '포비든'이다. '지옥'과 '마이네임'은 넷플릭스 시리즈, '포비든'은 HBO ASIA의 오리지널 드라마 시리즈다.



넷플릭스 '지옥'

동명의 웹툰이 원작인 '지옥'은 갑작스러운 지옥행 선고를 받는 초자연적 현상이 벌어지고, 이 혼란을 틈타 부흥한 종교단체 새진리회와 그에 맞서 사건의 실체를 밝혀려는 사람들이 서로 얽히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배우 유아인, 박정민 등이 출연한다. 전

세계적으로는 토론토국제영화제에 이어 두 번째로 상영된다.

'마이네임'은 여성 서사를 중심으로 한 강렬하고 매력적인 액션 느와르로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비밀을 밝히기 위해 새로운 이름으로 경찰에 잡힌 주인공(한소희 분)의 냉혹한 진실과 복수를 그렸다.

'포비든'은 아버지의 장례식을 위해 방콕에서 멀리 떨어진 산골마을로 향하는 네 친구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태국에서 배우 겸 가수로 활동중인 크리타나품 피불송그람을 비롯해 태국 최고의 라이징 스타들이 대거 등장한다.

스카이데일리/뉴스스



조이와 크러쉬

조이 인스타그램

크러쉬♥조이, 열애 인정할 날 "인터넷 보긴 봤다" 민망 웃음

레드벨벳 조이가 크러쉬와의 열애를 인정할 날, 자신이 한 일에 대해 고백했다. 24일 방송된 네이버 NOW 슬기(zip)에서는 레드벨벳 멤버 5인이 출연했다. 이날 멤버들은 자신들과 관련한 문제를 내고 답을 맞는 시간을 가졌다. 조이는 자신의 차례에 "내가 어제(23일) 집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이라는 문제를 읽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해당 날짜는 조이와 크러쉬의 열애 사실이 공개된 날이었다.

아이린은 먼저 "조이 이름 검색하기"라고 웃으며 답했다. 이어 웬다가 "핸드폰 봤다"고 말했고, 예리도 "인터넷 봤다"고 답변을 이어나갔다. 이에 조이는 "나한테 왜 이런 질문을 주고 답을 맞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조이는 "나한테 왜 이런 질문을 주고 답을 맞는 시간을 가졌다"며 "힌트는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아이린은 "대본 봤다"라고 말해 정답을 맞췄다. 이후 조이는 "인터넷 보긴 봤다"고 말해 폭소를 자아냈다.

스카이데일리/뉴스스

고현정의 귀환... 2년만에 '너를 닮은 사람' 10월 첫 방송

배우 고현정의 귀환으로 화제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JTBC 새 드라마 '너를 닮은 사람'이 10월 시청자들을 찾아온다.

'너를 닮은 사람' 측은 10월 첫 방송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너를 닮은 사람'은 아내와 엄마라는 수식어를 버리고 자신의 욕망에 충실했던 여자와 그 여자와의 짧은 만남으로 제 인생의 조연이 된 또 다른 여자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다. 고현정, 신현빈, 김재영, 최원영 등이 출연한다.

정소현 작가의 동명 소설 '너를 닮은 사람'을 원작으로 하지만 소설과는 다른 새로운 결의 드라마가 될 예정이다. 드라마 '비밀', '눈길', '그냥 사랑하는 사이' 등을 선보인 유보라 작가가 집필한다.

배우 고현정은 지난한 젊은 시절을 보냈지만 행복하고 여유로운 가정을 꾸린 뒤 화가이자 예제이 작가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 '정희주' 역을 맡았다.

소설 '너를 닮은 사람'과 다른 새로운 결의 드라마 신현빈·김재영·최원영 등 출연으로 기대감 UP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누리면서도 흘러간 시간에 대한 허망함을 품고 있는 인물이다. 약 2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하는 고현정은 주인공 '정희주'의 묘하고 섬세한 감정선을 그려내며 극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제작진은 "주인공 '정희주'가 가진 단단하고 복잡한 내면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배우로 고현정을 가장 먼저 떠올렸다"며 신뢰를 드러냈다.

또 다른 주인공 '구해원'은 신현빈이 연기한다. '구해원'은 가난마저 빛나는 장식품으로 보이게 만들던 아름다운 청춘이었지만, '정희주'와의 만남에서 큰 상처를 받고 시간이 갈수록 잃아가는 자신을 발견하는 인물이다.

신현빈은 꿈을 품고 찬란하게 빛나다가

참담하게 망가져 버린 '구해원'을 자신만의 분위기로 소화해낼 것으로 보인다.

김재영은 천재 조각가였던 아버지의 뒤를 따라 미대에 진학하고 조각가가 됐지만 언제나 재능보다 외모가 이슈가 되는 조각가 '서우재' 역을 맡았다. 불안하고 외로운 영혼을 가진 인물이다.

여기에 최원영이 '정희주'의 다정다감한 남편이자 태담재단의 병원과 중학교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안현성' 역할로 출연해 고현정과 부부 호흡을 맞춘다.



JTBC '너를 닮은 사람'

스카이데일리/뉴스스

JTBC 새 드라마 '너를 닮은 사람'에 출연하는 배우 고현정

영탁 측 "예천양조, 60대 모친 기만" 주장

트로트 가수 영탁과 '영탁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가 막걸리 상표권 등을 두고 법적 분쟁을 예고한 가운데, 영탁 측이 예천양조의 주장을 다시 반박했다.

영탁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있는 뉴에라프로젝트는 25일 "예천양조 측의 부당한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안내한다"는 입장문을 내었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가 영탁 어머니를 지역 연구 등을 내세워 의도적으로 접근해 친분을 쌓아 협상 파트너로 끌어들이었다"며 "사업에 대한 이해와 경향이 없는 영탁의 60대 후반 모친이 예천양조 측의 기만행위에 말려들게 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상표권료 150억 원 주장에 대해 "상표권 관련 협의 중 모친이 전달한 메모를 악용하고 자의적으로 과장 산정한 150억 원 요구 프레임으로 비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돼지머리 등 영탁 모친의 '갑질' 주



가수 영탁

예천양조

장에 대해선 "공갈 협박을 실행하기 위한 비방"이라며 "본질과는 무관한 사유를 들어 대응을 현혹시키려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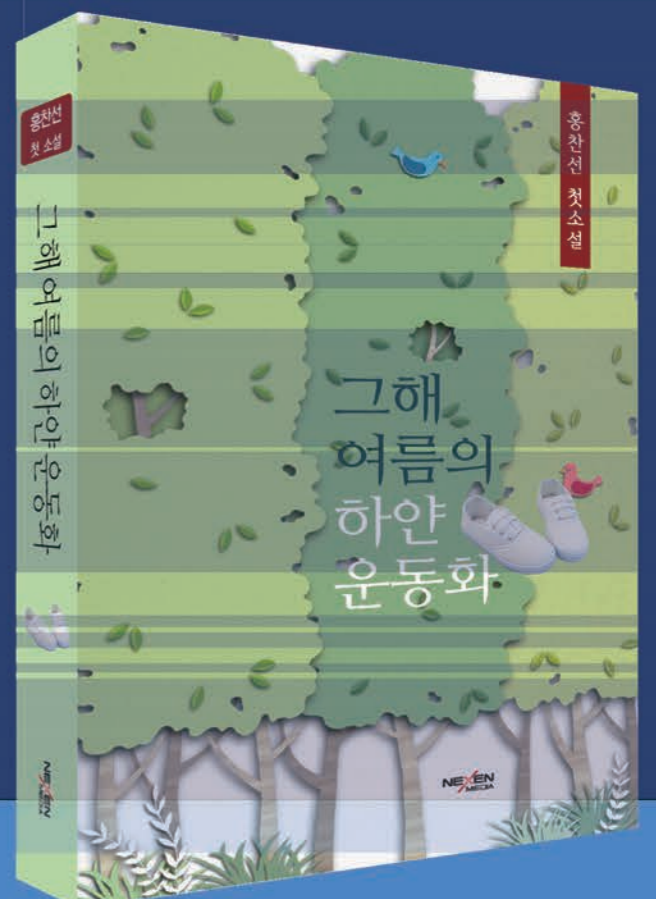
앞서 예천양조 측은 19일 "150억원 요구 금액은 사실무근"이라는 영탁 측의 입장에 "고소장이 접수되는 대로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수사기관에 제출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반박한 바 있다.

스카이데일리/뉴스스

그해 여름의 하얀 운동화

홍찬선 지음 | 352P 18,000원

- 이 소설은 샘(喪)이다. 작가가 짧은 기간 내에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을 쏟아낸 샘이고, 우리가 이야기해 풍긋하면 다음 아님 자기 얼굴을 보게 되는 샘이다. 무엇보다 이 소설은 시리디 시리게 맑은 샘이다. 정겨웠던 한국 농촌에서 때 묻지 않은 아이의 눈동자로 퍼 올린 샘이다. - 최문형(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겸임교수, 작가, 칼럼니스트, '식물처럼 살기' 저자)
- 이제 겨우 걸음마를 떼 초보 소설가로서는 돈키호테 같은 말로 들린다. 하지만 "꿈은 아름답고 상상은 즐겁다. 삶은 새로운 것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다." 『그해 여름의 하얀 운동화』가 조국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보듬고 실타처럼 얽혀있는 갈등을 푸는 불쏘시개가 된다면 그의 바람은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세계일보>
-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는 가치 전도의 세상에서 진영논리에 얽히지 말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는 품격 있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 배고픈 시대가 지났는데도 조화보다는 갈등, 협동보다는 투쟁적이라면 김구 선생이 언급한 문화국가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 <여원뉴스>
- 상상을 현실로 옮기는 실천가면서,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는 초인, 니체가 아닐까. 아니라면서 늘 거기에 서 있다. 아주 큰 나무 같은 사람. 그래서 오라버니 품처럼 정겹다. 소설집 『그해 여름의 하얀 운동화』도 그렇게 읽힌다. 그가 말하는 촌놈은 사상이이고 철학자이다. 그가 좋다. 사람 냄새가 나서 참 좋다. <이태경 시인>
- 자신의 어렵던 시절을 모든 이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은 용기다. 그런 용기는 현재의 만족함에서, 어느 고지에 다다른 사람만이 표현할 수 있는 힘이다. 더 어렵고 더 힘든 소설 같은 과거사를 보자기에 신주단지처럼 포장한 사람들은 이런 용기를 부러워 할 것이다. 여러 아재들 위에 계란 하나 올리고 새콤한 유자 소스 얹은 샐러드 같은 한상처럼 잘 받았다. <신경자 숲해설가>



홍찬선의 또 다른 작품!

- <임시정부 100년 시대 조국의 기생충은 누구인가 / 27,000원>
- <삶 DMZ해원가 / 20,000원>
- <얼-3·1정신 혼찬송 / 15,000원>
- <길 - 대한제국 진혼곡 / 23,000원>
- <일제종주주의 / 홍찬선 외 5인 공저 / 21,000원>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매 관련 문의: 070-7868-8799

